Q1.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11번의 실패, 그리고 1번의 성공을 향한 집념과 근성]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하는 집념과 근성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이 있다면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반복된 도전과 성공의 과정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초기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입찰 탈락을 11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입찰에 성공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탈락했던 제안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사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입찰이었던 '2017 가상현실 기반의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제안사) 중심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상황 및 환경분석 결과 KAIST에서는 2~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했고, 기존의 진로 체험에 VR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VR 기기의 특성상 다수의 기기를 한꺼번에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VR 기기를 동시에 통제하는 솔루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 복수의 HMD 원격 통제 솔루션’을 콘텐츠 아이디어와 융합하여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은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을 더욱 강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한 집념과 근성은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강한 집념과 근성을 바탕으로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Q2.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Connected Life’를 향해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울시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했었습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시 서울의 공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버스의 정류장 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와 구간별 교통 혼잡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하차 도우미 앱’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서울시 교통 체증 개선 방안’이라는 아이디어가 좋게 인정받아 금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안의 가능성은 인정받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결과물은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고, 이 같은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변화해가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보면서 가능성의 발굴과 실현이라는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동반자를 향한 과정은 연구 · 품질 · 생산 · 판매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신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실제 글로벌 SCM 시스템, 글로벌 ERP 시스템, PLM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IT 기술 기반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Connected Life’를 향해 가는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목적지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길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처럼 효과적인 IT 전략 제시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목적지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Q3.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시한 사업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때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의 즐거움은 곧 좋은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느낀 일의 즐거움을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IT 전략’ 부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IT 기술 적용 방안을 계획 및 수립하는 일을 한다면, 일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짜 PM,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법과 구성원들과의 소통하는 법을 익히다]

스타트업에서 PM 직무를 맡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직무 역량을 길렀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길렀습니다. 프로젝트의 PM으로서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에 맞게 업무 분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길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였습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렀습니다. 고객사와 팀원들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소통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고객사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꼼꼼한 프로젝트 관리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 맡은 PM 직무였지만, 오히려 짧은 경력으로는 하기 힘든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IT 전략’ 부서에서도 현업과 함께 프로젝트 단위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프로젝트에 큰 성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